

10/8/17

설교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길 소원하는 이유 (로마서 1 장 8-15)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8-17

- (롬 1: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 (롬 1: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애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 (롬 1: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절관주** 롬 15:32
- (롬 1: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 (롬 1: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 (롬 1: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절관주** 롬 15:23
- (롬 1: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 (롬 1: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에 이어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롬 1: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위가 있어 사회에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수가 대단히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옵니다.

그들의 복음적인 삶이 로마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기에 이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나라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해 낸 것이 아니고 소수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해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수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다면 소수의 우리들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로마를 바꾼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돈이 많은 것에 대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과 다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해내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보러 로마에 가길 소원한다고 말합니다.

(롬 1: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롬 1: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마음 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마음 먹었으며 그때가 오면 당연히 로마에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가 그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1.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롬 1: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롬 1: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원했습니다.

성도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서로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교제를 나누면서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2. 그들이 열매맺기를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롬 1: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인격과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전도와 영혼
구원 모두 다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롬 1: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롬 1: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빛진 자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성도들을 죽이는데도 서슴없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여느때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그를 찾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한 일을 참회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생각도 달라졌고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빛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빛을 졌다는 말은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갚을 능력이 있어서 빛을 갚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빛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빛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자신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 빛을 진 것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받은 자들 모두는 복음의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값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빛을 지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미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전해 듣고 믿을 때는 복음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교회 제도와 형식에 익숙해짐에 따라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 주의와 율법 주의에 빠집니다.

값없이 믿었던 복음을 자꾸만 행위와 율법으로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기 보다는 기술만 늘리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그들이 당장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몇 명이나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는지 여러분은 그 숫자를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우물쭈물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글쎄 나같은 것이 감히 그런데를 갈 수 있을지.....”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의 바르고 겸손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시고 애통해 하실 일입니다.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같은 것이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 뜰만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해도 담대히 당당하게 천국에 갈 것을 자신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부담감으로 인해 견딜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합니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세지말로 치닫고 있어 약합니다.

WCC, 신천지, 신사도, 레마 등등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미혹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지옥 같은 것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도 받아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교제를 나눔으로 서로 위로와 격려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빛진 자임을 명심하고 빛진 심정으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